

사설

인권연대국은 입장을 재고해달라

지난 22일, 본교 총학생회 인권연대국에서 ‘퀴어퍼레이드 참여 취소 결정에 대한 인권연대국의 입장문’을 학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7월 16일 중앙비상대책위원회(중비대위) 임시회의에서 퀴어퍼레이드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인권연대국 측에서 경위서 겸 게시한 입장문이었다.

인권연대국 측은 입장문에서 ‘인권은 찬반이나 논의의 영역이 아닙니다. 혐오 발언은 여론이 될 수 없습니다. 중비대위의 결정은 명백히 반인권적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총학생회 차원의 퀴어퍼레이드 축제에 대한 논의가 성소수자 자체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시회의 당시 오갔던 논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징성과 대표성’에 불과했다. 임시회의에 참여했다면, 적어도 논의가 성소수자의 존재와 인권에 대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인권연대국은 중비대위 측이 교내의 반대 여론과 퀴어퍼레이드의 일부 논란에만 집중하며 참여의 본질을 흐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참여자 중 인권연대국의 주장에 동의하는 자가 얼마큼 되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학내 사회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반인권적 행위의 혐오론자로 가득 차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다. 본지가 퀴어퍼레이드의 논란이 오래 전에 해결됐음을 보여주는 스케치 기사를 작성해도 그들의 의견을 지지하지 않으면 혐오 발언을 하는 신문사가 된다는 논리나 다를 없다.

물론, 학내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쉽게 달리는 댓글 중 몇 개는, 성소수자 혐오를 참여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학내 사회의 주된 의견이 그들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총학생회와 학내 사회는, 그러한 일부 혐오론자들에게 휘둘리는 갈대와 같은 사회인가? 지금까지 ‘고대’가 해온 자정작용 모두를 부정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인류가 피 흘리며 얻어낸 인권은 명백히 논의의 영역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성역’이다. 그렇기에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인권과 무관한 논의를 ‘인권에 대한 논의’로 둔갑시키지 않는지를 우리는 감시해야 한다. 그러한 특성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을 사용할 뿐이다. 고귀한 인권을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선민의식에 빠진 자가 아닐까 진지하게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는 인권연대국도 재고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OTT와 구독제 서비스 그리고 한국영화의 미래

시론

노철환
인하대 교수·연극영화학과



회귀 영화를 만나기 위해 외국문화원을 순례하던 시절이 있었다. VHS 불법 복제본을 보물처럼 돌려보고, 한정판 DVD를 소장하려 애썼던 때도...모두 ‘라떼’ 이야기다. 몇 년 사이 세계영화시장 판도가 급변했다. 감염병 위협과 극장운영 제한조치는 ‘관객수 감소’ 기대작 개봉 연기 기 상영 편수 축소 기 관객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했다. 극장시장 영향력이 절대적이던 한국영화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할리우드라는 절대 강자가 존재하는 영화산업에서 자생 가능한 시장과 경쟁력 있는 자국영화를 견뎌야 한다는 흔치 않다. 한국은 그 드문 사례다. 한국영화를 아끼는 관객 덕분이다. 더불어 영화발전기금은 지난 20년간 급성장한 한국영화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손꼽힌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영화관람료 3%에 해당하는 부가금이다. 매년 650억 원 정도 모인 기금은 영화제작 및 부가시장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투자기반구축, 영화

전문교육, 문화 다양성 강화 등 한국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쓰인다. 기금 규모와 운용은 한국영화정책의 실체나 다름없다. 납부 주체는 극장 관객이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극장 호황기가 끝났다. 위기에 빠진 극장의 요청으로 기금 징수가 일시 면제되었다. 결국 영화발전기금 소진이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 2년 동안 〈사냥의 시간〉, 〈승리호〉, 〈낙원의 밤〉 같은 적잖은 대형 한국영화들이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문제는 이 영화들의 수익이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쌓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영화라도 국내 극장에서 거둔 수익은 기금의 재원이 된다. 영화의 핵심 시장으로 떠오른 OTT가 한국 관객들의 기여로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면, 기금 징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일리 있다.

OTT는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콘텐츠를 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급사와 관람수익을 나눠야 하는 극장과 달리,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는 가입자의 요금을 고스란히 챙긴다. 성수기/비수기 구분도 없다.

부침이 심한 한국극장에 OTT 같은 구독제 서비스를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 OTT의 영화 수익 부가금으로 기금을 확보해 구독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실제로 극장 구독제 서비스 사례는 적잖다. 2001년 프랑스에서 시작한 고몽/파테의 시네파스와 UGC의 UGC 일리미테가 대표적이다. 월정액을 지불한 회원은 전국 체

인과 제휴 극장 어디서나 보고 싶은 영화를 제한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월회비는 26세 미만이라면 17~18유로 정도다. 파리 시내 일반 관람료가 15유로 가량이니, 관객 입장에선 한달에 2편만 봐도 이득이다. 세계 1, 2위 극장 체인인 영미의 AMC와 리갈시네마도 구독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루하다 싶으면 빠르게 넘길 수 있는 영상들은 그만큼 빨리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대형 스크린과 풍성한 음향이 주는 감동은 인상을 찌푸리며 응시한 작은 화면에 비할 바 아니다. 최적 환경에서 만난 다양한 영화들은 안목을 높여준다. 칸영화제의 예술적 권위 저변에는 연간 관객수의 4분의 1 가량이 독립예술영화에서 나오는 영화애호(cinéphilie) 문화가 버티고 있다. 볼거리가 넘치는 세상에서 극장은 2시간 동안 오롯이 영화에만 집중하며 타인과 공간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공간이다.

고대하던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요원하지만, 다행히 천만관객 영화가 돌아왔다. “너의 장미를 그렇게나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장미를 위해 잃어버린 시간 때문이야” 사막여우가 어린왕자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다. 극장 영화 관람은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그만큼 소중한 영화를 만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확률도 높아진다. 한국영화의 미래는 영화애호가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들을 의식하며 창작열을 불태우는 영화인들의 맞잡은 손에 달려 있다.

석탑추추

제대로 된 곳을 뚫어다오

○...얼마 전 쏟아진 폭우를 다들 보았소? 하늘에 구멍이 뚫린 줄 알았다오. 호형들은 무사하오? 한 호형은 우산 쓰는 것이 습관이 됐는지 실내에서도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게 아니겠소. 장난을 치나 싶어 호통을 치려 했더니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구려. 구멍은 하늘에만 뚫린 게 아닌 것 같소.

○...호형들, 학교로부터 문자를 받았소? 에너지사용량이 목표에 도달했으니 냉방기 사용 중지를 권고하더군. 지구의 건강을 위해 잠시 냉방기에 휴식 시간을 줬소. 저런, 결국 호랑이의 열기를 식히지 못해 땀구멍이 뚫렸소. 호형의 건강은 쟁

길 수 있는지 의문이구려.

○...어디서 훌쩍 소리가 들리지 않소? 한 호형이 에어컨 바람에 추워 견디지 못하고 뒤흠나왔다고 하오. 옆 강의실 냉방기는 휴식 중이라는데 참 이상하오. 결국 감기에 걸려 한여름에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코를 한껏 풀고 있대네. 그의 코를 뚫어줄 방법은 어디 없는가.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소. 다들 준비는 잘하고 있소? 수업을 들을 생각에 마음도 답답해지는 듯하오. 짹 막힌 내 마음 뚫어줄 방법은 어디 없는가.

김시현 취재1부장 poem@

수레바퀴

어디 있든 우리 열, 우리 문화재

얼마 전 경복궁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방문했다. 특별전시로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이 진행 중이었다. 올해가 나라 밖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된 지 10년째 되는 해라고 한다. 전시를 따라 우리 문화재의 발자취를 둘러봤다.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유출 경위와 환수 과정을 지닌 문화재들을 볼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되기도 했으며 병인양요, 한국전쟁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 약탈과 도난을 당하기도 했다. 전시를 보며 나도 모르게 문화재에 감정이입을 했다. 한반도를 떠나 낯선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마음이 아팠다.

국외 소재 문화재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시기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영어 교과서 속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지심체요절을 발견

한 박병선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 해외에 우리 문화재가 많이 흩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박병선 선생님을 이어 우리의 문화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됐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많은 국외 소재 문화재들이 환수됐으며 이렇게 고궁박물관에서 전시도 열렸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결실을 본 것이다.

이번 전시는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나아가게 했다. 문화재 환수가 절실한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문화재를 환수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의 활용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 문화재의 가치가 현지에서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문화재를 우리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 아니다. 우리 문화재의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보존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자. 국내에 있던 국외에 있던 우리의 열이 깃든 문화재라면 보호하고 알아가야 한다. 나라 사랑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

윤혜정 기획2부장 samsara@

중단횡단

행복이란 마음의 상태

며칠 전 오랜만에 친구와의 만남이 있었다. 뗏을 부리겠다고 잘 맞지도 않는 신발을 신고 나갔다. 걸을 때마다 아팠지만 그래도 꼭 참고 온종일 돌아다녔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확인해보니 발이 다 까져서 물집이 생겼다.

발에 맞지도 않는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내 모습은 내 인간관계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라는 말도 종종 듣고는 한다. 하지만 가끔은 그 말이 나를 옥죄어 온다. 어디까지 배려하고, 얼마나 맞춰야 할까. 나랑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보내는 시간이 평화로워 좋다는데, 정작 나는 누구를 만나도 편하지 않고 되레 불편할 때도 있다. 분명 친하다고 생각한 친

구들인데도 만나면 어색하고 지루할 때가 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집과 카페에 가고 집에 돌아오면 재미있었다기보다는 피곤할 뿐이다. 피곤함은 이내 짜증으로 변했고 짜증은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넘게 이런 만남이 이어지니 내 맘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더 커졌고, 애벌레가 사과를 갉아 먹듯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 사과가 썩어 문드러질 때쯤 내 모습을 보니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퍼즐 조각도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조각이랑만 맞는데 나는 모든 사람과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라 불리는 작가 앤드류 매트류스(Andrew Matthews)

는 “당신은 그저 당신이란 이유만으로도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아껴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과 멀어질까 두려워 본인을 숨기면서 공공 앓고 있을 필요는 없다. 굳이 모든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설령 누군가와 멀어진다고 해도 자책할 필요도 상대를 원망할 필요도 없다. 결국 떠나갈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떠나갈 것이고 곁에 남을 사람들은 계속 함께 있어 줄 것이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심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배려는 바로 남이 아닌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김연수 기자 lotus@

고대신문사 The Korea University Weekly

1947년 11월 3일 창간	취재2부장	류요셉	총무국	02-3290-1682
주간	매주 월요일 발행	기획1부장	엄선영	중앙일보
		기획2부장	윤혜정	
발행인	정진택	사진부장	강동우	홈페이지 www.kunews.ac.kr
편집인 겸 주간	김재한	미디어부장	김채연	메일 press@kunews.ac.kr
				페이스북 /kunews1947
				플러스친구 @고대신문
편집국장	이원호	편집국	02-3290-1683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108
취재1부장	김시현	세종 편집국	044-860-1888	청산MK문화관 6층